



닭고기 FTA(자유무역협정), 어떻게 진행되나?

세계는 글로벌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농업분야에 있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갑지 않은 시대적 흐름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또는 FTA가 거론되는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농업분야에 있어 상당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자유무역이 체결된 나라는 칠레뿐이지만 곧이어 아세안(태국, 베트남 등)에 이어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가세할 전망이다.

사실 칠레 그리고 아세안, 캐나다의 경우 우리 계육업계에 있어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이미 FTA가 체결됐지만 닭고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돼지고기의 경우 실상은 협정체결 이전과 이후가 판이

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협정체결 이전만 해도 한·칠레와의 돈육 무역거래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었고 양돈업계 역시 별다른 생각 없이 협정체결을 목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급격히 변해 칠레산 돼지고기가 전체 수입물량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역물량이 급성장했다.

아세안과의 FTA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급증,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그다지 막대한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닭고기류의 관세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까지 20%의 관세를 인하하는 수준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간에는 AI의 발생으로 수입물량이 감소되



어있지만 과거 5년간 아세안과의 닭고기 교역량이 많았기 때문에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다소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양허관세를 적용시켜 협상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 중 태국 등이 우리측 협상안에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자국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보다는 적정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아세안에 이어 협상이 전개되는 것이 캐나다와의 FTA이다.

앞서 거론된 나라들과는 달리 캐나다는 국내 전체 축산업계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는 한발 뒤로 물러선 상황이지만 돼지고기를 비롯해 낙농제품류에 있어서는 심각한 상황전개가 예상된다.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될 수 있으나 BSE(소해면상뇌증)로 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고 있는 관계로 이번 협상에서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돼지고기에 대한 개방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캐나다와의 교역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관심거리로 대두되고 있


지는 않다. 그러나 캐나다 뒤에는 미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기도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대한 피해규모는 많게는 연간 약 8조8천억원에서 적게는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론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즉시철폐시 닭고기의 경우를 포함, 축산물 분야의 대대적인 피해가 예상돼 축산물은 절대적인 경쟁력 취약 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닭고기는 지속적인 성장산업이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입에서 10위안에 드는 거대 산업이다.

지난해 닭고기는 총 2만6천996톤, 약 3천6백만달러 어치가 수입되었으며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1.34달러 정도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닭고기류의 관세는 20%로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은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저가의 미국산 닭다리가 대량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글 · 김한웅 부장 | hw@chicken.or.kr